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일 목요일 음 8월 6일(11월)

목요일론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은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4℃, 낮 최고기온은 26-28℃로 예상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Table with food safety and radiation safety indices.

Table with PM10 and PM2.5 forecasts.

주간예보

내일 흐리고 비 23/27℃, 모레 흐리고 비 25/29℃

월드뉴스

일본 올해 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소

작년 동기 대비 5.0% 감소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 발표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30일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38만4942명으로 작년 동기(40만5029명) 대비 5.0% 감소했다.

이는 후생성이 상반기 속보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9231명 감소한 81만1604명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122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베이비 붐' 시대인 1949년 269만663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1973년



일본 도쿄의 어린이. 연합뉴스

209만1983명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2016년 처음으로 100만명 선이 깨졌다.

마이니치신문은 31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산 연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 수는 77만 7213명이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39만2271명에 달했다.



오경수 제주대학교 SW중심대학 교문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도내 고등학교 생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는 '대중문화캠프'가 지난달 서귀포시에서 열렸다.

행사는 예술·문화계에 20년 이상 몸 담고 있는 재경제주인 30여 명이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2박 3일 일정으로 열었다.

세계적 지자체 위한 재능기부와 고향사랑기부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학생들에게 12년간(총 1665명) 묵묵히 멘토 역할을 한 '제주엔터테인먼트 모임'의 회원들은 그 방면에서 전문가로 우뚝 선 훌륭한 우리고향 출신(양윤호 영화감독, 문희경 배우 등)들이다.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간접경험을 쌓게 도와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한 예시에 불과하다. 지금 제주사회에서는 출향인들이 외지에서 생활하면서도 먼저 경험한 것과 지식을 고향마을이나 각종 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다.

주경제인연합회, 국제협의회, 금융포럼, IT포럼 등이 저마다의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고, 특히 각 마을 향우회에서는 물질적인 기부까지도 서슴치 않아 출향인들의 제주사랑은 어느 지역보다 각별하고 애정이 깊은 것으로 소문나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이는 제주도와외주 및 일반사람들이 제주도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제주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 개인 당 기부한도는 500만원으로 제주도의 재정 확충은 물론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향 제주도민이나 관광객 제주를 다녀간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제주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사전 환

경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사랑이 각별한 우리 제주인들의 기존 네트워크는 대단하다. 서울 도민회, 재외 각 시도 도민회, 명예도민, 고교와 대학 제주동문회, 각 마을 향우회, 동종업계 제주도인들이 하나로 뭉쳐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다면 그 효과는 실로 대단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적극적 홍보마케팅이다. 제주와 직접 연고가 있는 출향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알리는 한편 제주도청에서 구축해 놓은 명예도민 등의 빅데이터(Bigdata)를 활용한 홍보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재능기부를 확대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추진한다면, 제주가 대한민국의 관광지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지자체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

열린마당

아이코리아제주, 캄보디아에 어린이집 설립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선물하겠습니다



이정선 아이코리아제주 대표회장

17명의 국제봉사단은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블록 장난감, 인형, 크레파스, 색종이 등의 교구 그리고 티셔츠, 신발, 모자, 의약품들까지. 이 모든 것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약 160km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농촌마을에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가 5개월 만에 준공식을 맞은 뽀은평화어린이집에 선물하기 위한 준비였다.

캄보디아는 최근들어 경제성장을 이뤄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사정은 좋지 않다. 또한 소위 킬링필드라 불리는 크메르루주의 만행으로 인해 지식인, 성직자, 소수민족이 잔혹한 방법으로 말살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캄보디아의 지식인이 사라지게 됐다. 그 결과 캄보디아의 교육도 같이 사라지게 되면서 높은 문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립된 뽀은평화어린이집은 한국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뽀은 마을 어린이 60여 명에게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일행은 준비하고 간 많은 후원 물품들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제주의 예쁜 당근모자와 선물꾸러미를 나눠줬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 더 준비하고 싶을 걸 하는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했다.

이번 뽀은평화어린이집 건립은 아이코리아제주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이뤄져 더욱 의미가 깊다. 직접 다녀온 봉사단 말고도 모든 회원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고대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명절 전 다액의 돈이 인출된 것을 노리는 절도, 가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피싱 사기 등 범죄가 혼란한 틈을 타 기승을 부린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 단체와 공동체 치안을 전개하고 범죄 취약요인 진단·분석을 통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서민생활 침해형 범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의 임무는 전사와 수호자로 포괄할 수 있다.

첫째, 전사로서 불법과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몰려서지 않고 반드시 이기기 위해 개인역량 및 기능 간 협업을 강화하고 둘째, 수호자로서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진정성 있게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다.

도민에게 제주경찰은 공기와 같아서 맑은 공기가 공급되면 그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걱정 없이 살아가나 오염되면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인식하듯이 치안 질서가 혼란하면 도민은 제주경찰의 존재를 실감하게 된다. 또한, 제주경찰에게 도민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과 같아서 도민을 떠난 제주경찰은 존재할 수 없고 그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경찰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전사와 수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 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라일보 제주 대표신문 정보: 발행인·인쇄·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인터넷 서비스, 기사제보, 구독신청·배달, 1989년 4월 22일 창간

부고 고씨종문회총본부 제주 高公 玟洙 고문 [초대 민선 제주시장, 前 고씨종문회총본부 회장 및 탐라종묘문화재단 이사장]께서 2022년 8월 31일 오전 5시 1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9월 2일 (금요일), 발인일시: 2022년 9월 3일 (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 -> 조천읍 와흘 선영, 연락처: 고씨종문회총본부 사무실 751-0711

부고 고길림(前 제주시부시장) 아버지 제주고공 민수(前 제주시장, 향년 89세)께서 서기 2022년 8월 31일 05시 1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9월 2일(금요일), 발인일시: 2022년 9월 3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 -> 조천읍 와흘선영

부고 이종철(前 제주도청, 現 (주)한라이엔씨 이사) 아버지 고부이공 정부(前 제주도청·향년 71세)께서 서기 2022년 8월 30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9월 3일(토요일), 발인일시: 2022년 9월 4일(일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중앙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대정읍 보성리 가족 선영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